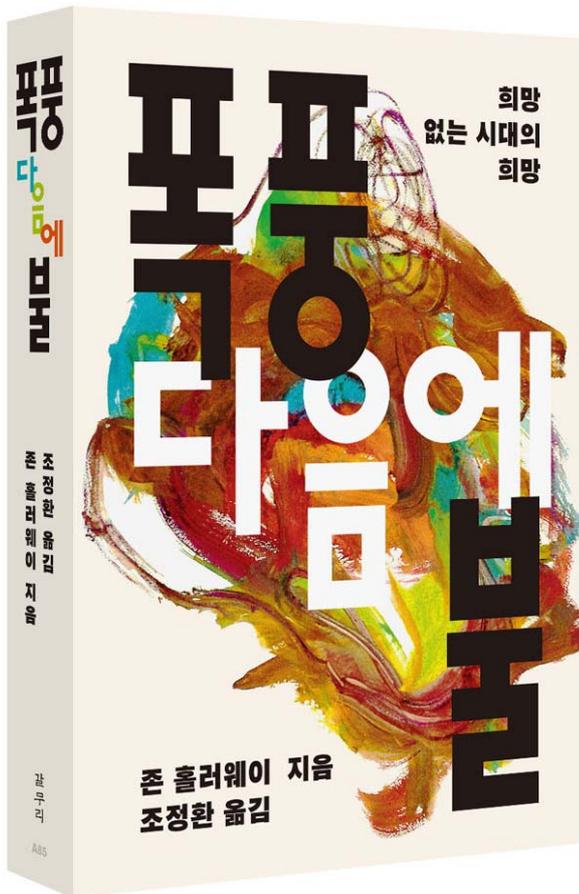


# 폭풍 다음에 불

희망 없는 시대의 희망

*Hope in Hopeless Times*



화폐는 가둔다. 풍요는 넘쳐흐른다.

홀러웨이는 이 책의 이어지는 장들 속에서 자신이 전투적인 삶 속에서 뿌려온 것들을 확실하게 모아내면서 우리를 큰 감동으로 이끈다.

— 안토니오 네그리

이 책에서 자본주의적 통제에 대한 그의 비타협적인 비판과 “무리”에 대한 그의 옹호는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겪고 있는 몇몇 독에 대한 해독제로 작용한다.

— 마이클 하트

존 홀러웨이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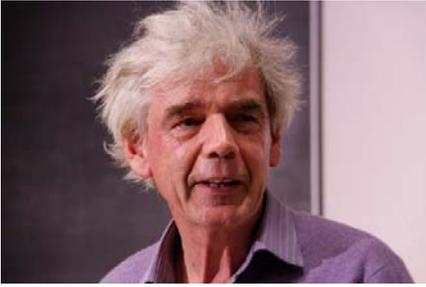
조정환 옮김

아우또노미아총서 85 출간일 : 2024년 10월 28일 쪽수 : 448쪽 가격 : 27,000원 판형 : 국판 145X210  
 무게 : 563g 도서분류 : 철학, 정치경제학, 정치철학, 사회운동, 맑스주의 ISBN : 978-89-6195-368-9 03300

보도자료 차례  
 1. 간략한 소개 2. 상세한 소개 3. 존 홀러웨이 인터뷰 4. 추천사 5. 지은이·옮긴이 소개 6. 책 속에서  
 7. 목차 8. 『폭풍 다음에 불』 관련 도서 안내



## 1. 『폭풍 다음에 불』 간략한 소개



존 홀러웨이 (194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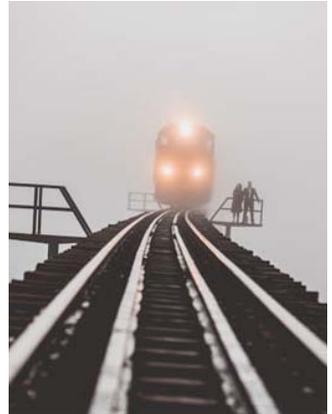
자본주의의 종말보다 세계의 종말을 상상하는 것이 더 쉽게 느껴질 정도로 희망이 느껴지지 않는 자본주의 리얼리즘의 시대에 존 홀러웨이가 에른스트 블로흐를 이어 희망의 가능성과 원리에 대해 다시 생각한다. 그는 우리가 화폐라는 특유한 역사적 형식으로 서로 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이 엄청난 고통, 파괴, 팬데믹, 전쟁, 기후위기, 요컨대 멸종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지만 그 속에서 그것에 대항하며 그것을 넘어서는 희망의 잠재력이 실재하는바, 그것이 풍요(richness)임을 강조한다.

오늘날 자본의 가상화와 부채의 확장은 비복종적인 무리(rabble)에 대한 두려움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 화폐-자본이윤의 사슬이 실제로는 지극히 취약함을 보여준다. 오늘날 희망은 이 취약한 화폐-자본-이윤의 사슬에서 풍요를 해방시키는 것이다. 화폐는 가두지만 풍요는 넘쳐흐른다. 『권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크랙 캐피털리즘』을 잇는 획기적인 삼부작의 이 마지막 책에서 저자는 반자본주의와 반정체성주의를 융합하고 희망을 정치경제학 비판과 혁명이론의 핵심 속으로 가져온다. 그것은 우리 자신 속에서 희망의 힘을 찾아 그것을 존엄한 혁명적 분노, 이성적 희망으로 발전시키자는 저자의 간절한 제안을 표현한다.

## 2. 『폭풍 다음에 불』 상세한 소개

###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 : 이 열차의 비상브레이크를 누가 당길 것인가?

탄핵 가능성이 집권 이후 가장 높아진 시기인 2024년 10월, 대통령은 범우사에서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며 한국 사회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이 폭주 기관차의 비상 브레이크를 스스로 당기기를 거부했다. 비상벨의 경고음이 사회 곳곳에서 들린 지 오래인 데도 말이다. 사람들의 삶을 정신적, 신체적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 기관차의 폭주는 한국에 특유한 현상이 아니다. 『폭풍 다음에 불』은 열차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 것인지를 질문하면서 시작된다. “기차는 더 빠르게, 더 빠르게 밤을 향해 질주한다. 어디로 가는 걸까?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 걸까? 강제 수용소로? 핵전쟁으로? 팬데믹의 연속으로?”(20쪽)



지금처럼 계속 달리면 위험하다는 위기의 징후들은 많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의료 위기, 폭염, 자영업자 위기, 동물 멸종, 물가 폭등, 기후 재난, 복지 예산 삭감, 홍수, 디지털 성폭력, 산불, 가계부채 폭증, 오염수 방류, 혐오 범죄, 블랙리스트, 빈부격차 ... 그리고 핵전쟁. 홀러웨이는 이 기차의 종착역을 가리키는 뜻말이 점점 더 선명하게 깜빡이고 있다고 쓴다. 도착역의 이름은 “멸종”이다. 희망은 있을까?

### 희망의 현 상태 : “그래, 알아. 그런데 뭐 어찌겠어?”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의 종말보다 세계의 종말을 상상하는 것이 더 쉽다”는 구절을 읽고 공감한다. “자본주의 리얼리즘”을 표현하는 말이다. 이런 시대에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어 보인다. 『폭풍 다음에 불』의 저자는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전쟁터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 사회적 참사의 진상이 규명되지 않는 것, 책임자들이 처벌받지

않는 것, 법이 돈과 권력의 소유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것, 필수노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열악한 조건 속에서 착취당하는 것, 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지 못하는 것 ... **사람들은 이 모든 것에 분노한다.** 우리 시대에 이는 **세계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이다.**

홀러웨이는 **분노와 희망이 서로 분리되는 것이 위험하다고** 말한다. 그럴 때 희망은 “어, 별로 안 좋겠는데” 정도로, 또는 “우리 못 본 척해도 다 잘될 거야”로 희석되거나 질식사하고 만다. **분노하는 이유는 무언가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분노와 희망이 분리되면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분노했던 것을 그냥 받아들이게 된다.** 끔찍한 소식들을 읽고서 어쩔 수 없다고 어깨를 으쓱한 후 곧장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이다. “구걸하거나 길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다른 곳을 쳐다본다. 우리의 분노는 도덕적 불편함으로, 죄를 지었다는 불편한 죄책감으로 된다.”(26쪽) 이런 태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문제를 야기하는 체제적 힘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는 것이다. 홀러웨이의 말처럼, 이럴 때 희망은 “**그래, 알아. 그런데 뭐 어찌겠어?**”가 된다.

## 우리는 희망을 다시 배워야 한다 : 희망은 “좋은 텐데”가 아니다



에른스트 블로흐 (1880~1959)

희망을 말하기 위해 홀러웨이가 참조하는 사람은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고 **세 권의 대작 『희망의 원리』**를 출간한 **독일의 철학자 에른스트 블로흐**다. 블로흐는 동화, 춤, 음악, 문학, 종교 등 모든 종류의 인간 활동에서 희망의 중심성을 보았다. 그는 그 속에 다른 세상을 향한 끊임없는 추구가 있다고 보았다. 블로흐가 희망을 말했던 20세기 중반과 비교해서 오늘날이 더 희망적이라고 홀러웨이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홀러웨이는 **블로흐가 가질 수 있었던 자신감은 오늘날에는 어려운 것**이라고 말한다. “... 세계 곳곳에서 파시즘이나 파시즘에 가까운 것이 대두되고 있다. 어떤 유의미한 혁명적 정당도 없고, 비자본주의적이라고 주장이나마 하려고 하는 국가조차 거의 없으며, 혁명 세력으로서의 노동계급의 존재도 전혀 분명하지 않다”(43쪽).

희망을 말하는 것은 당시보다 더 어려워졌지만 **희망 없음을 받아들이고 체념하는 것이야말로 죽음의 기차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오늘, 희망이 더 절실히 필요하다고 홀러웨이는 말한다.

책의 2부 ‘우리는 희망을 다시 배워야 한다’는 우리가 배워야 할 희망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데 할애되었다. 희망을 배우는 것은 희망을 생각하기를 배우는 것이다(6장). 홀러웨이의 **희망은 “전쟁이 없다면 좋은 텐데!”**에서처럼 “**좋은 텐데**”의 **소망적 사고와 분명히 다르다.** ‘이성적 희망’은 정의된 목표에 도달하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요구하기 때문에, **현존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싸우는(48쪽) 종류의 희망**이다.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할 희망은 정체성주의적이지 않은 희망이다(7장). 그것은 사람을 남성, 원주민, 백인 같은 정체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적대의 흐름(및 넘쳐흐름)을 기반으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여성일 수도 있고 원주민일 수도 있고 흑인일 수도 있고 아널 수도 있다. 또 홀러웨이는 희망은 부재가 아니라 **절규에서 시작되며(8장), 절규는 우리를 부정적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고(9장), 부정적인 사고를 넘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안에서-대항하고-넘어서”라는 희망의 핵심적인 반정체성주의적 전치사를 채택할 수 있어야 한다(10장)**고 쓴다.

**화폐가 우리를 죽이고 있다.**

**우리는 생명의 편에 서거나 아니면 화폐의 편에 서야 한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홀러웨이는 영국 화가이자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의 「지옥의 잠언」에서 인용한 문구 “물통은 가둔다. 분수는 넘쳐흐른다.”를 책의 맨 앞에 제사로 배치했다. 그런데 그 바로 아래에는 홀러웨이의 생각을 표현하는 “화폐는 가둔다. 풍요는 넘쳐흐른다.”가 있다. 물통이 화폐로, 분수는 풍요로 대체되었다. 분노와 희망과 존엄을 말하기 위해서는 ‘화폐’를 타격해야 한다는 것을 홀러웨이는 시작부터 말하고 있다.

돈 또는 화폐에 대해 사람들이 갖는 생각은 이런 것이다. 우선 사람들은 더 많이 벌고 싶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 “자본주의 인간”, “자본의 노예” 같은 표현이 널리 쓰인다. 사람들은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 돈벌이를 해야 하는 현실을 자조할 때 이런 말을 쓴다. 사람들은 “자본주의”로 인해서 희생되고 질식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희망의 현 상태가 “그런데 뭐 어찌겠어?”로 끝나듯이, 화폐에 대해서도 “자본주의 인데 뭐, 어찌겠어?”로 끝나고 만다. 화폐 없는 세상 같은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화폐는 자신을 영원하고 죽지 않는 것으로 제시한다. 화폐의 끝없는 자기 확장 운동이 모든 생명의 미래 존재를 위협하게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지만 “화폐를 넘어선다는 생각은 미친 사람들이나 하는 생각이다”(367쪽).

그렇지만 홀러웨이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고 쓴다. 화폐의 추구가 지구 온난화와 환경 파괴의 배후에 있다. 개별적이고 대량적인 파괴 무기 생산의 배후에 화폐가 있다. 수많은 삶을 무의미하고 비참한 것으로 만드는 착취의 배후에 화폐가 있다. 이것을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대한 자조가 많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빠띠스파들은 “우리는 생명의 편에 서거나 아니면 화폐의 편에 서야 합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존 홀러웨이 인터뷰). 현실이 그러하다면, 화폐의 지배가 지난 수 세기 동안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비참과 파괴와 죽음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멸종 가능성에 직면하도록 하고 있다면, 화폐의 폐지를 해결책 모색의 중심에 두는 방법을 찾아야만 하지 않겠냐고 홀러웨이는 말한다.

## 풍요는 넘쳐흐른다. 자본은 무리를 두려워한다. 우리가 위기다.

블레이크의 분수를 풍요로 대체한 홀러웨이의 두 번째 문장에서 그는 풍요가 넘쳐흐른다고 말했다.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 풍요는 어디에 있을까? 1960년대와 70년대 이탈리아의 ‘오빠라이스모’가 실현한 “코페르니쿠스적 전도”(107쪽)를 이해하면 홀러웨이의 생각에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전도는 홀러웨이의 표현을 빌리자면 맑스의 자본 비판이 상품이 아니라 풍요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노동하고 생산하는 사람들은 자본의 희생자로 자주 그려져 왔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자본이 노동계급의 공격에 대응하면서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는 관점이 오빠라이스모의 코페르니쿠스적 전도였다. 홀러웨이는 이러한 관점에 “주관적 의지주의”의 위험이 있음을 경계하면서도, 책의 여러 곳에서 이들의 주장과 공명하는 문장들을 쓰고 있다.



세종로에 모인 사람들. 2008. 6. 10. 광화문 세종로 (출처 : <https://www.flickr.com/photos/eggarna/2570460624>)

자본가들과 그 친구들의 문헌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군림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그들의 두려움이다. 무리들이 들고 일어나 무질서와 혼돈이 지배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자본의 심장 안에 있다. 홀러웨이는 특히 이 책의 7부에서 『파이낸셜 타임스』의 인용구들을 비평하면서 이 점을 보여준다. 2007~2008년 금융위기에 대한 자본의 대응과 코

로나 팬데믹으로 초래된 정치경제 위기에 대한 자본의 대응이 어째서 두려움에 기초한 것이었는지를 이 책은 설명한다. 그리하여 부채를 확대하고 양적 완화를 할 수밖에 없고 “가상자본”의 폭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된 것은, 화폐-자본이윤의 사슬에 무리(rabble)로서의 우리가 갖고 있는 풍요가 결코 완전히 가뒤편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홀러웨이는 말한다. “화폐의 취약성은 자율적인 체제적 동역학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저항과 반란의 힘이 낳는 결과이다”(368쪽).

## 존 홀러웨이는 누구인가? 사빠띠스따, 제목의 의미, 그리고 홀러웨이의 삼부작

존 홀러웨이는 1947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태어났다. 경력의 초반에는 법률가로서 훈련을 받았고, 1975년에는 에든버러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에든버러 대학에서 오랫동안 정치학을 가르쳤다. 1991년 멕시코로 이주해 사빠띠스따 봉기가 일어나기 직전인 1993년부터 멕시코 베네메리따 뿌에블라 자치대학 인문사회과학 연구소에 재직했다. 사빠띠스따는 NAFTA 협정이 발효되는 1994년 1월 1일 멕시코 라캉도나 정글에서 봉기한 원주민 투쟁이다. 홀러웨이의 사유는 언제나 사빠띠스따와 함께 호흡하는 것이었다. 이 책 『폭풍 다음에 불』에서도 홀러웨이는 사빠띠스따의 아름다운 말들을 곳곳에 인용하고 있다.



사빠띠스따 마을 학교의 벽화 (출처: 위키미디어 커먼즈)

이 책의 제목이 된 ‘폭풍’의 이미지 역시 사빠띠스따의 토르멘따라는 말에서 온 것이다. 이 책의 영어판의 제목은 Hope in Hopeless Times(희망 없는 시대의 희망)이다. 책의 옮긴이이자 홀러웨이 삼부작을 모두 번역한 정치철학자 조정환은 「옮긴이 후기」에서, 『폭풍 다음에 불』 37장과 38장에 등장하는 폭풍과 불의 이미지를 연결하여 책의 제목을 “폭풍 다음에 불”로 바꾸고 “희망 없는 시대의 희망”을 부제로 배치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홀러웨이는 벤야민의 「역사철학 테제」에 등장하는 진보의 폭풍, 사빠띠스따의 토르멘따(tormenta)에서 폭풍의 이미지를 가져오고 있다.

그것은 위기의 이미지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위기의 희생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의 잠재적 주체라고 보면서 폭풍이 불로 이어질 것임을 시사한다. 더 강력한 위기, 불의 위기가 닥친다면 어떻게 할까? 『폭풍 다음에 불』은, 위기가 끝날 때까지 숨어 있는 노아 스타일의 방주로 더 이상 대처할 수 없는 거대한 위기의 필연성과 그 속에 내장된 무리의 잠재력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408쪽)

홀러웨이는 『폭풍 다음에 불』이 자신의 삼부작의 마지막 책이라고 밝힌다. 1권, 2권 모두 갈무리 출판사에서 한국어판이 출간되었고 홀러웨이는 언제나 자신의 신간 소식을 갈무리 출판사에 먼저 알리면서 출간을 제안해 왔었다. 삼부작의 첫 번째 책인 『권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조정환 옮김, 갈무리, 2002)의 경우에는 홀러웨이가 미출간 원고를 미리 보내주어 영어판과 같은 해에 한국어판이 나올 수 있었다. 이 1권의 영어 원제는 Change the World Without Taking Power(권력 장악 없이 세상을 바꾸자, London : Pluto, 2002)로서 “지금까지 좌파가 꿈꾸었던 국가권력 장악은 실제로 꿈에 지나지 않으며 국가권력 장악 없이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는 획기적인 주장을 했다. 이 책 전반에 걸쳐 절규는 시작일 뿐만 아니라 영속적 에너지로 제시되었다. 삼부작의 두 번째 책인 『크랙 캐피털리즘』(조정환 옮김, 갈무리, 2013)에는 1권에서 질문으로 남았던, 혁명의 길과 방법에 대한 제시가 강하게 나타났다. 그 길은 “균열을 통한 틈새혁명”이었다. 이번에 선보이는 삼부작의 마지막 권 『폭풍 다음에 불』에서 홀러웨이는 희망과 풍요, 무리(rabble)를 이야기한다. 절규는 균열을 거쳐 희망으로 이동했다.

홀러웨이는 우리가 긴급한 위기 속에 있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결합하는 다른 방법을 절박하고 시급하게 필요로 한다”(403쪽)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다고 강조한다. 홀러웨이는 사빠띠스따들을 따라,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라는, 말하면서-듣기의 운동을 시작하자고, 다른 세상을 향한 춤을 시작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 3. 존 홀러웨이 인터뷰

2023년 2월 존 홀러웨이와 존 말킨이 『폭풍 다음에 불』에 관해 진행한 인터뷰이다. 아래에서 원문을 볼 수 있다.

<https://www.indybay.org/newsitems/2024/03/23/18864471.php>

Q. 이 책에서 선생님은 화폐에 기반을 두지 않는 세계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이지요?

『폭풍 다음에 불』은 당연하면서도 우리 시대에는 거의 말하기가 불가능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화폐와 국가, 노동과 빈곤은 사회의 영원한 특징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랍니다. 가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가난은 영구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폐에 대해 우리가 하는 생각은 더 많이 갖고 싶다는 것입니다. 화폐의 재분배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화폐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폐가 우리의 삶과 생각, 잠재력 전체를 형성합니다.

이 책의 핵심 개념 중 하나는 풍요(richness)입니다. 저는 풍요가 혁명적인 주체라고 주장하는데, 이때 풍요를 금전적 풍요로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잠재력으로서의 풍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언가”로서 풍요를 이해합니다. 우리의 전통, 문화, 희망의 일부인 온갖 종류의 풍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풍요는 항상 화폐의 지배에 의해 왜곡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는 일, 내일 할 일, 내년에 할 일, 그리고 생이 끝날 때까지 하는 모든 일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살기 위해 돈벌이를 해야 한다는 필요에 의해 좌우되고 형성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 모두는 화폐가 우리 삶에서 실업과 기아를 유발하는 끔찍한 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년 안에 수십만 명이 굶주림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식량과 우리의 관계가 화폐를 통해 매개되기 때문입니다.

화폐를 어떤 사회적 관계, 즉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는 지배적인 방식으로 생각하면 화폐가 우리의 삶을 왜곡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폐는 우리의 잠재력을 좌절시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불공정하고 폭력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멸종으로 이끄는 파괴의 동역학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제는 훨씬 더 잘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Q. 탈출구가 있을까요?

탈출구가 있는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구 온난화와 생물 다양성 파괴 등 재앙을 향한 이러한 움직임과 함께 극우 세력이 부상하고 있고 핵전쟁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재앙을 향한 이러한 움직임의 이면에 화폐와 이윤에 대한 추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맺는 관계들이 화폐를 통해 매개된다는 사실은 개개인에게 매일매일 재앙과도 같은 일입니다. 하지만 인류 전체의 발전 측면에서도 그것은 재앙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우리가 “화폐를 없애 버립시다. 화폐를 폐지합시다. 다른 사회적 관계 형태들을 구축합시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단지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멸종을 향한 이 드라이브를 피할 유일한 방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희망과 혁명에 대해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희망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는 사실 혁명적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성이나 유색인종에 대한 억압이 없는 사회를 희망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사회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우리의 투쟁은 항상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으로 끝이 납니다. 때때로 우리는 진전을 이루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이 아닌 화폐가 지배하는 사회의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전이기에 때문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혁명이라는 아이디어로 돌아옵니다. 이 파괴의 사회적 동역학을 어떻게 깨뜨릴 수 있을까요?

『권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의 핵심 주장은 사회적 형태로서의 국가가 자본주의와 너무 밀접하게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를 통해서는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국가는 화폐의 축적을 촉진합니다. 국가는 다른 편입니다. 우리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좌파 사상을 가진 정부가 들어선다 해도 자본 축적을 촉진해야 한다는 제약에 묶여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책 『크랙 캐피털리즘』은 사회 변화를 일으키려면 자본주의 지배에 균열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제출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를 파괴하는 이 시스템에 적응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그 반대 방향으로 견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집합적일수록 더 좋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면 화폐의 힘을 깨부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사빠띠스파 운동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례입니다. 그들은 “아니요, 우리 영토에서는 국가와 자본의 지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는 민중이 통치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책 『폭풍 다음에 불』은 “네, 처음 두 권도 괜찮았지만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해요.”라고 말하는 반항적인 소녀-책입니다. 제가 하려는 것은 사회관계로서의 화폐의 약점을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화폐의 힘은 끝없이 계속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의 투쟁이 어떤 방식으로 화폐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이어지는지를 탐구합니다. 이것은 지난 40년 동안 전 세계에서 부채의 엄청난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화폐의 취약성을 확인할 수 있고 화폐의 지배 밖에 있는 공간들을 계속 창출해 나갈 수 있습니다.

Q. 모든 억압 시스템의 중심에는 공포가 있다고 쓰셨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본이 확장되고 점점 더 외설적으로 되더라도, 자본은 공포를 기반으로 성장합니다. 모든 지배 체제의 중심에는 공포가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소수가 다수를 착취할 수 있는 능력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배자는 피지배자의 저항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희망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희망, 우리의 풍요에서 생각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화폐는 사실 우리에게 의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화폐와 자본주의에서의 우리의 역할이 시스템 내에서 취약성을 구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취약성은 자본주의 체제의 일종의 만성 질환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그 시스템에 균열을 낼 수 있을까?”입니다.

Q. 누가 한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요즘 많은 사람들은 “자본주의의 종말을 상상하는 것보다 세상의 종말을 상상하는 게 더 쉽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 역시 그 표현이 어디서 유래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지면서 갑자기 그 말이 와 닿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의 종말을 생각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자본주의는 처음부터 매우 폭력적인 억압 형태로서 수백만 명의 삶을 짓밟았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은 화폐가 사람들의 활동을 결집시키는 마구(馬具)로서 매우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화폐는

인간의 노력을 사회화합니다. 5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을 생산하기 위해 오늘날 창의성에 마구가 채워져 연결되는 것을 보면 화폐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구-채우기는 항상 이윤 추구에 의해 형성됩니다. 마구는 어쩌면 굴레로 더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풍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우리의 잠재력은 금전적 부라는 의미에서 점점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시스템 안에 굴레가 씌워져 얽매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는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 Q. 자본주의 바깥에서 살아가는 사례로서 사빠띠스파에 대해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빠띠스파는 놀라운 영감의 원천이었습니다. 사빠띠스파는 멕시코 남동부 치아빠스에 기반을 둔 원주민 운동입니다. 1983년에 조직을 설립했지만 처음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94년 1월 1일, 멕시코가 북미자유무역협정인 NAFTA에 가입한 날이었습니다. 사빠띠스파들은 산과 마을에서 내려와 치아빠스주의 여섯 개 마을을 점거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군사적 대결로 대응했고, 사빠띠스파는 철수했습니다. 그러나 멕시코 국민과 전 세계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웠고, 12일 만에 휴전이 선언되고 사빠띠스파와 정부 간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빠띠스파 운동은 그들의 영토 내에서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교육 체계, 의료 체계, 사법 체계 즉 그들만의 통치 체제를 발전시켰습니다.

현재 사빠띠스파가 전하는 메시지는 “삶 그 자체가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화폐의 힘에 의해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화폐에 대항하는 삶, 우리는 어느 편에 설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편에 서거나 아니면 화폐의 편에 서야 합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책에 대한 제 구상이 거기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정말 맞는 말입니다. 정말 영감을 주는 말이죠. 저는 사빠띠스파에 대해 얼마든지 계속 열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공개적 실존을 갖게 된 지 29년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2024년 10월 말 현재는 30년이 넘었다). 한 세대의 젊은이들이 사빠띠스파 운동 속에서 성장했고, 그들은 자신들만의 다른 사회를 만들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매우 일관되고 강력하며 집합적이고 강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빠띠스파는 끊임없이 영감을 줍니다.

## 4. 추천사

존 홀러웨이는 복잡하고 학문적이며 지적 만족감을 주는 논쟁들을 놀라울 정도로 읽기 쉬운 산문으로 풀어내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 이 책에서 자본주의적 통제에 대한 그의 비타협적인 비판과 “무리”에 대한 그의 옹호는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겪고 있는 몇몇 독에 대한 해독제로 작용한다.

— 마이클 하트, 『전복적 70년대』의 지은이

우리는 모든 것이 사라지거나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역사의 영점에 있다. 생명의 멸종에 대해서는 필수적인 것들이 이미 이야기되었다. 그러나 세계 곳곳에서 타오르고, 꺼지고, 다시 불타오르는 반란들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되지 않았다. 때때로 그 반란들은 허망하게 끝났다. 하지만 이제 처음으로, 운동이 지도자나 외부 조직 없이 성장하고 있다. 그 운동의 핵심적 열망은 진정으로 인간이 될 자유다. 존 홀러웨이는 이 넘쳐흐름의 시 속에서 삶의 반란을 포착한 사람 중 하나다.

— 라울 바네젠, 『일상생활의 혁명』의 지은이

돈은 피착취자들, 소수자들, 생산하면서 복종해야 하는 자들의 감옥이다. 우리는 그 안에 갇혀 있다. 하지만 노동하고 투쟁하면서

화폐의 지평을 넘어선 곳을 발견할 때 우리는, 금융 명령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해방 투쟁의 문을 여는 운동을 통해 희망을 체현한다. 더 이상 자본이 지배할 수 없는 우리, 우리들 모두, 요컨대 혁명적 다중은 희망으로 무장하고 있다. 홀러웨이는 이 책의 이어지는 장들 속에서 자신이 전투적인 삶 속에서 뿌려온 것들을 확실하게 모아내면서 우리를 큰 감동으로 이끈다.

— 안토니오 네그리, 『주권의 종말』의 지은이

세계가 점점 더 분명하게 재앙을 향해 치닫고 있으며, 이를 멈추려는 모든 시도가 지금까지 실패해 왔다는 사실에 직면하여, 더 나은 세계를, 좀 더 인간적이고 더 정의로운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선언하는 것이 일리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에 반하여, 존 홀러웨이는 희망이 없는 시기에도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희망이 없는 시기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 희망은 소망적 사고로서의 희망이 아니라 기존의 관계들, 그 모순들, 현재의 가능성들, 그리고 이미 존재하는 실천적 주도성들을 면밀히 고려한 결과로서의 희망이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홀러웨이의 성찰은 중요하며, 그것은 반드시 진지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 요아힘 히르쉬, 프랑크푸르트 요한 볼프강 괴테 대학교 명예 교수

에른스트 블로흐의 『희망의 원리』, 칼 맑스의 정치경제학 비판, 그리고 사빠띠스마의 존엄한 분노를 결합하고 있는 존 홀러웨이의 이 새 책은 괴물 같은 자본주의 히드라에 맞서 싸우고 그것을 파괴하라는 멋진 호소이다.

— 마이클 뢰비, 맑스주의 사회학자 겸 철학자

우리 시대의 비참함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희망하는가? 우리는 이미 너무나 파국적인 것으로 드러난 사회주의의 완전 노동경제 체제를 희망하는가? 아니면 오랜 시대의 오물을 제거하면서 사회를 새롭게 창조하기를 희망하는가? 홀러웨이의 이 용감한 책은 부가 자유로운 가치분 시간이며 평등이 인간의 필요를 위한 평등인 사회를 주장한다. 이 책은 홀러웨이의 가장 전복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 워너 본펠드, 요크 대학교 교수

자신의 놀라운 삼부작의 이 마지막 권에서 홀러웨이의 작업은 그가 화폐라는 가장 어두운 힘, 이 진짜 히드라를 사로잡아 목을 조르면서 절정으로 치닫는다.

— 아니트라 넬슨, 『화폐를 넘어서: 탈자본주의 전략』의 지은이

## 5. 지은이, 옮긴이 소개

### 지은이 존 홀러웨이 John Holloway, 1947~

아일랜드 더블린 출생. 에든버러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멕시코 〈뿌에블라 자율대학〉의 〈인문 사회과학 연구원〉 교수이며, 1991년부터 멕시코에 거주하면서 사빠띠스마 운동과 관련한 작업들을 하고 있다. 1970년대에는 영국 〈사회주의 경제학회의〉의 영향력 있는 구성원으로 활동했고, ‘국가도출 논쟁’을 주도하였다. 워너 본펠드와 함께 영국에서 ‘열린 맑스주의’(Open Marxism) 시리즈를 출판했다. 맑스주의, 아나키즘, 반자본주의 진영 내에서 많은 토론을 불러일으켰던 그의 책 『권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에서 그는 혁명의 가능성은 국가장치의 장악에 있지 않으며 자본주의 사회의 비참을 거부하는 일상적인 행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편저서로는 *Social Policy Harmonisation in the European Community* (1981), *Post-Fordism and Social Form* (1991, 공동편저), *Open*

*Marxism* (1995, 공동편저), *Zapatista!* (1998, 공동편저), *Negativity and Revolution* (2008, 공동편저), *In, Against, and Beyond Capitalism* (2016), *We are the Crisis of Capital* (2018) 등이 있고, 한국어로 번역된 편저서로 『국가와 자본』 (공동편저, 청사, 1987), 『신자유주의와 화폐의 정치』 (공동편저, 갈무리, 1999), 『권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갈무리, 2002), 『크랙 캐피탈리즘 : 균열혁명의 멜로디』 (갈무리, 2013), 『폭풍 다음에 불 : 희망 없는 시대의 희망』 (갈무리, 2024)이 있다.

### 윤진이 조정환 Joe Jeong Hwan, 1956~

서울대학원 국문과에서 프롤레타리아 문학을 전공하고 노동해방문학운동에 참가했다. 정치사상사와 정치철학, 정치미학을 연구하며 주권형태의 변형과 21세기 정치의 새로운 주체성에 대한 탐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다중지성의 정원[http://daziwon.com] 대표 겸 상임강사, 도서출판 갈무리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민주주의 민족문화론과 자기비판』, 『노동해방문학의 논리』, 『아우또노미아』, 『제국기계 비판』, 『카이로스의 문학』, 『민중이 사라진 시대의 문학』 (공저), 『레닌과 미래의 혁명』, 『미네르바의 촛불』, 『공통도시』, 『플럭서스 예술혁명』 (공저), 『인지자본주의』, 『인지와 자본』 (공저), 『후쿠시마에서 부는 바람』 (공저), 『옥상의 정치』 (공저), 『예술인간의 탄생』, 『절대민주주의』, 『증언혐오』, 『까판의 문법』, 『개념무기들』 등이 있고 이외에 여러 권의 편역서와 번역서가 있다.

## 6. 책 속에서

희망이 없는 시대에 희망을 찾으려면 우리는 우리의 힘을 보아야 하고, 우리의 투쟁을 존중해야 하며, 끔찍한 자본주의 지배 체제가 우리를 지배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그리고 자본주의 지배 체제의 그 위기가 필사적 위기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위기의 희생자가 아니라 위기의 주인공입니다. 우리의 저항과 반란, 반항과 비복종, 로봇이 되는 것에 대한 우리의 거부, 이런 것들이 항상 자본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들입니다. 희망이 없는 시대에 바로 그것들이야말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 한국어판 지은이 서문, 19쪽

우리의 풍요에서, 우리의 창조적 잠재력의 절대적인 전개에서, 우리의 절대적인 생성 운동에서 시작하자. 그들에게서가 아니라 우리에게서 시작하자. 우리는 우리에게서만 시작할 수 있다. 삼인칭으로 시작하면 그 끔찍하고 살인적인 삼인칭이 이미 우리를 밀어내게 된다.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가는 곳에서, 우리를 가두는 것에 대한 우리의 넘쳐흐름에서 시작하자. 우리의 넘쳐흐름은 풍요에서 시작하자.

— 2. 다시 시작하자.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에서. 가둠에서가 아니라 넘쳐흐름에서. 30쪽

혁명적 희망에 대한 사고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주체와 객체가 상호 적대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상호 침투에 의해서도 구성된다는 점이다. 그것들의 충돌은 두 개의 당구공이 서로에게 가하는 명백한 외부적인 충격이 아니다. 거기에는 상호 침투가 있다. 절규하는 우리는 우리가 대항하여 절규하는 자본에 의해 침투된다. 갈등하는 두 극 사이의 관계는 내적 관계이다.

— 9. 절규는 우리를 부정적 방향으로 이끈다. 68쪽

정체화는 프로크루스테스적 끼워맞추기이다. 정체화된 인격은 어떤 상자에 억지로 끼워 맞춰진다. 정체성주의적 대응은 상자를 재정의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여성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재정의하는 것으로 쉽게 끝낼 수 있다. 반정체성주의적 반응은 어긋남이며 넘쳐흐름이다. 우리는 여성, 게이, 원주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상이다. 우리는 생성

의 운동이기 때문에 그 어떤 범주에도 끼워 맞춰지지 않는다.

— 19. 희망은 객체에 대항하는 주체의 운동이며 속박에 대항하는 파열이다. 171쪽

세계 곳곳에서 ‘우파’의 눈에 띄는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 **사람들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법, 그 분류의 문법을 공격하는 것이 중요하다.** ‘좌파’로부터의 반란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아마 더 많은 반란이 ‘우파’로부터 나타나고 있는 이 순간에 자본이 느낄 명백한 두려움을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분류 문법의 가능한 취약성을 드러낼 것이다.

— 26. 위기에서 재구조화로 갈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자본의 목숨을 건 도약이다. 241쪽

**화폐가 우리를 죽이고 있다.** 너무 간단하다. 화폐가 우리를 죽이고 있다.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화폐를 죽이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화폐를 죽일 수 있을까? 사회관계로서의 화폐를 폐지함으로써,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를 증대하는 힘으로서의 화폐를 제거함으로써, 한마디로 말해 탈화폐화함으로써다. **화폐 없는 세상을 상상하자.**

— 28. 화폐가 지배한다. 화폐는 우리 모두를 파괴하는 연쇄 살인마이다. 250쪽

자본은 반란하는 자들, **활동가들, 공공연히 자본의 지배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 또 자본은 비복종하는 자들, 자명종이 울리면 하품만 하고 다시 잠이 드는 사람들, 너무 우울하다고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들, 일하러 가지 않고 자기 아이들과 노는 사람들, 수업을 빼먹고 자신들의 책, 바로 이 책을 들고 공원으로 가는 사람들 등을 자신의 논리 안에 가두기 위해 싸운다.

— 41. 우리는 무리-풍요-저항-반란이다. 380~381쪽

## 7. 목차

한국어판에 붙이는 서문 10

머리말 : 저 기차를 멈춰라 20

1부 분노-희망-풍요

1. 오늘, 어느 날. 24

2. 다시 시작하자.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에서. 가둠에서가 아니라 넘쳐흐름에서. 27

3. 아니 오히려 적대에서, 투쟁에서 시작하자. 32

4. 괴로움에서, 야누스에서 시작하자. “모자라!”에서 시작하자! 우리가 죽여야 할 히드라에서 시작하자. 36

2부 우리는 희망을 다시 배워야 한다

5. 다시 희망을 배울 때다. 42

6. 희망을 배우는 것은 희망을 생각하기를 배우는 것이다 : 이성적 희망. 45

7. 희망은 정체성을 넘어서 나아간다. 49

8. 우리의 희망은 부재가 아니라 절규에서 시작된다. 57

9. 절규는 우리를 부정적 방향으로 이끈다. 60

10. 부정적인 사고를 넘어서 : 안에서-대항하고-넘어서 사고하기. 79

### 3부 역사성

11. 대항-희망은 역사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 88
12. 역사성은 역사적 유물론을 의미하지 않는다. 95
13. 파멸을 향해 우리를 데려가는 기차라는 거대서사. 이것은 깨져야 할 서사다. 100

### 4부 주체

14. 희망은 희생자를 위한 것도, 영웅을 위한 것도 아니다. 104
15. 풍요가 혁명적 주체다. 113
16. 잠재된 풍요에 귀를 기울여라. 123
17. 다시 귀를 기울여라 : 거기에 더 깊은 수준의 잠재성이 있다. 127
18. 모든 것을 뒤집어라, 자본가들을 불쌍하게 생각하라. 134

### 5부 객체 : 화폐

19. 희망은 객체에 대항하는 주체의 운동이며 속박에 대항하는 파열이다. 146
20. 파괴 사슬의 연결고리들은 끊기 어렵다. 175
21. 속박의 약점은 형태들 간의 연결이 아니라 그것들의 내적 적대에 있다. 182
22. 속박을 풀기 : 혁명을 혁명하기. 197
23. 상품에 대항하는 풍요 : 세상은 두 가지 길에 직면한다. 204

### 6부 희망을 생각하라, 위기를 생각하라

24. 희망의 이론은 그 대상, 즉 희망되는 것의 약함이나 위기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 208
25. 위기는 자본에 내재한다. 211
26. 위기에서 재구조화로 갈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자본의 목숨을 건 도약이다. 217

### 7부 지연된 위기

27. 희망은 화폐라는 히드라와 맞선다. 246
28. 화폐가 지배한다. 화폐는 우리 모두를 파괴하는 연쇄 살인마이다. 249
29. 오늘날 자본은 점점 더 가상적으로 되고 있다. 화폐는 아프다. 255
30. 우리는 화폐 위기의 주체들이다. 278
31. 재앙을 미루는 것은 정치경제학의 중심원칙이다. 금본위제의 포기는 폐가 지배할 길을 열어준다. 289
32. 전쟁은 자본의 황금기를 창출했다. 그것의 위기는 금과 화폐 사이의 연결을 끊었다. 298
33. 볼커 충격 : 건전한 화폐를 도입하려는 마지막 시도. 303
34. 검은 월요일 : 부채가 이룩하다. 316
35. 화폐와 가치 사이의 균열이 계속해서 커진다 : 일련의 심장 마비. 322
36. 자본의 취약성은 2007/2008년 금융 위기에서 폭발한다. 두 번째 심장마비? 326
37.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 그다음에는 불이다. 333

38. 폭풍이 몰아친다 : 코로나 위기. 341

39. 거대한 취약성이 심화된다. 349

8부 결론을 찾는 책. 행복한 결말을 찾는 희망.

40. 가둠기가 이제 더 이상 가둘 수 없다. 366

41. 우리는 무리-풍요-저항-반란이다. 378

42. 분노에서 존엄한 분노로, 라비아에서 디그나 라비아로. 382

43. 풍요를 해방하라! 395

44. 모자라 404

감사 4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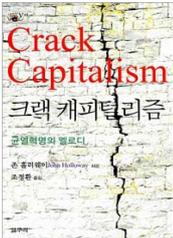
웁김이 후기 408

참고문헌 429

인명 찾아보기 4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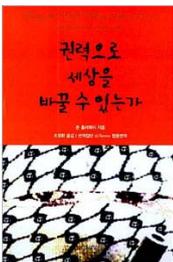
용어 찾아보기 442

## 8. 『폭풍 다음에 불』 관련 도서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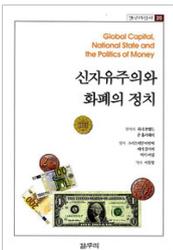
『크랙 캐피탈리즘 : 균열혁명의 멜로디』 (존 홀러웨이 지음, 조정환 웁김, 갈무리, 2013)

자본주의 체제에 ‘균열들’을 창조하고, 확장하고, 증식함으로써만 급진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균열들은 우리가 다른 유형의 행위를 천명하는 반란의 일상적인 순간들과 공간들이다. 홀러웨이는 투쟁들의 단절적 배치라는 생각을 거부하면서 그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모순을 발견한다. 우리가 직장에서 수행하는 자본주의적 노동과, 우리가 필요하다거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행위를 향한 노력 사이의 대립이 그것이다. 이 책은 분명하고도 이해하기 쉬운 33개의 테제를 통해, 당장 자본주의를 부수기를 원하는 급진적 학자들과 활동가들, 대중들 사이에 논쟁을 재개시키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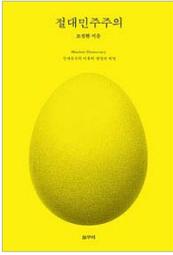
『권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존 홀러웨이 지음, 조정환 웁김, @Theoria 협동번역, 갈무리, 2002)

“태초에 절규가 있었다”며 시작한 이 책은 자본에 대한 노동의 투쟁보다 노동에 대한 자본의 의존성에 주의를 기울이고 앞 에 기초한 대답보다 알지 못함에 기초한 질문에서 혁명의 길을 찾도록 권유한다. 이 책 전반에 걸쳐 절규는 시작일 뿐만 아니라 영속적 에너지로 제시된다. 지금까지 좌파가 꿈꾸었던 국가권력 장악이 실제로 꿈에 지나지 않으며 국가권력 장악 없이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혁명이 절박하지만 우리가 혁명이 무엇인지를 아직 알지는 못한다고 끝맺어 독자에게 어떤 ‘과제’를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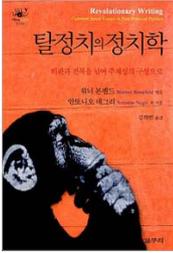
『신자유주의와 화폐의 정치』 (워너 본펠드 엮음, 이원영 웁김, 갈무리, 1999)

1968년 혁명과 더불어 도래한 케인즈주의의 위기 정세 속에서 자본이 어떻게 자신의 살길을 찾아 나가는가를 검토하면서 자본의 투기적 금융 자본화와 화폐의 정치의 대두, 즉 신자유주의의 상승이 그것의 산물임을 밝힌다. 필자들은 이 신자유주의의 지배 속에서 지구적 경제와 민족 국가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고 지난 20년간에 걸친 이 관계의 변형을 분석한다. 아울러 이 책은 노동자들의 불복종적 권력을 케인즈주의 위기를 가져온 잠재력이자 최근의 세계 경제 위기에서 보이듯 신자유주의의 위기를 규정하는 기본적 힘이라고 설명한다.



『절대민주주의 : 신자유주의 이후의 생명과 혁명』 (조정환 지음, 갈무리, 2017)

다종의 삶정치를 제도화한 절대민주주의 헌법에서는 다종이 직접적으로 정치가이듯이 다종을 대의하는 정치가들도 다종의 일부로서 다종에 복무하는 정치-노동자, 노동-정치가일 것이다. 군주제적 대의민주주의에서 대의 정치가들이 전유하고 향유해온 정치지대는 다종의 보편적 기본소속으로 재전유되고 사회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절대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를 민주화하고, 직접민주주의를 민주화하며, 집회민주주의와 일상민주주의를 민주화하는 힘으로 기능할 것이다. 모든 사람의 절대적 구성역량과 헌법의지에 의한 모든 민주주의의 민주화, 이것이 촛불다중혁명이 가리키는 이정표다.



『탈정치의 정치학 : 비판과 전복을 넘어 주체성의 구성으로』

(워너 본펠드 엮음, 안토니오 네그리, 존 홀러웨이 외 지음, 김의연 옮김, 갈무리, 2014)

사회민주주의와 맑스레닌주의라는 20세기의 두 가지 거대한 실정적 기획을 넘어서 ‘공통적인 것’의 발명으로 나아가려는 저자들이 열망이 담겨 있다. 이 책의 필자들 모두는 인간의 사회적 실천을 세계의 유일한 구성력으로 인정하면서 가치형태와 국가형태의 매개를 거부하는 자기해방의 기획을 옹호하고 있다. 이들의 이론적 작업은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생성·지속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의 삶과 투쟁을 원천으로 삼고 있다.



『국가에 대항하는 마르크스 : ‘정치 타율성’에 대하여』

(스미다 쇼이치로 지음, 정성진, 서성광 옮김, 산지니, 2024)

마르크스의 국가론은 토대-상부구조론의 틀 안에서 국가 기능의 ‘상대적 자율성’이나 토대에 대한 반작용이 논의되는 경우가 많았다. ‘계급 지배의 도구’로서의 국가라는 관점도 자주 강조되었다. 이것은 엥겔스의 담론에 크게 영향을 받은 논의이다. 스미다는 전통적 마르크스주의는 국가론 및 경제적 형태규정에 기초한 폴리틱얼 이코노미 비판이 결여된 채, 국가를 자본주의와 독립된 존재로 상정하는 ‘정치 타율성’론에 매몰되어 있었다고 말하며 대안으로 ‘정치 타율성’을 제시한다.



『공통체 : 자본과 국가 너머의 세상』

(안토니오 네그리, 마이클 하트 지음, 정남영, 윤영광 옮김, 사월의책, 2014)

네그리와 하트가 함께 쓴 ‘제국 3부작’의 마지막 책이자 종합편이다. 다종이 만드는 대안적 사회의 모습을 제시한다. <제국>와 <다중>의 문제의식을 더욱 확장하여 자본의 사적인 지배와 국가의 공적인 통제에 맞서 모두에게 개방된 ‘공통적인 것’의 구성을 옹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역설한다.